아동간호학회지 제13권 제3호, 2007년 7월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13 No.3, 308-317, July, 2007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 측정도구 개발

강경아[1] · 김신정[2] · 송미경[3] · 심송용[4] · 김성희[5]

1)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3) 경주시 안강초등학교 보건교사, 4) 한림대학교 통계학부 교수, 5) 아리조나 주립대학 연수과정

= Abstract =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Meaning of Life(MOL) for Higher Grade Primary School Children

Kang, Kyung-Ah[1] · Kim, Shin-Jeong[2] · Song, Mi-Kyung[3] · Sim, Songyong[4] · Kim, Sung-Hee[5]

1)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3) School Nurse, AnKang Elementary, 4) School Department of Statistics, Hallym University, 5) Trainee, Arizona State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L instrument for school-age children in grades 4 through 6. **Method:** The research design was a methodological study. A four-phase design involved. 1) Interview data generated from professors, nurse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n=8). 2) Content validation by expert panel (n=14) 3) Initial items correc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n=20) 4) Instrument validation by survey (n=574). Finally, 24 items were chosen as a meaning of life scale for late school-age children. **Results:**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of 24 items was .893 indicated a high internal consistency of the instrument, 2) Through factor analysis, 5 factors were extracted. These factors were labeled as 'relational experience', 'positive attitude', 'satisfaction/ hope', 'pursuit of goal', and experience of family love. These factors explained 52.311%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 The MOL scale for late school-age children can be used in nursing programs to improve the meaning of life. Studies on difference in meaning of life for late school-age children are needed for reverification.

Key words : Life, Child

주요어 : 학령기 후기, 아동, 삶의 의미, 도구개발
교신저자 : 김신정(E-mail: kimsj@hallym.ac.kr)
투고일: 2007년 4월 16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hin-Jeong(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Okchun-dong, Chunchon, Kwangwon-do 200-702, Korea
Tel: 82-33-248-2721 Fax: 82-33-248-2734 E-mail: kims@hallym.ac.kr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은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나 급속한 지식팽창, 업무 중심적이고 평가지향적인 경쟁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Kang & Lee, 2004). 또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학령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동기 비행, 인터넷 중독, 흡연, 음주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성적저조 비관 등으로 인한 자살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Kan & Kim, 2000; Oh, 2004).

학령기 후기는 청소년 전기라고도 하는데, 자아성장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로, 부모의 보호와 의존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되어 가는 과도기적 기간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되는 학령기 후기부터는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주체로서의 자신이 객체로서의 자신을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설정한 이상상(理想像)에 대해 노력할 수 있다(Han, Choi, & Park, 2004; Park, 2001).

한편, 사회발전으로 인한 영양상태의 개선과 대중 정보매체의 접근성, 개방적인 성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동의 성적 조숙화가 촉진되어 2차 성징인 사춘기 청소년의 발달특성이 학령기 후기부터 나타나고 있다(Alsop & McCaffrey, 1998; Kim et al., 2002). 호르몬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학령기 후기 아동은 현대의 급속한 사회 변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자녀와의 대화부족, 소자녀로 인한 높은 교육열, 부모의 과잉보호 및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아져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대 가정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간의 교류가 적고 바쁜 생활에 쫓겨 서로의 의미를 상실한 채 지지기반으로서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령기 후기 아동은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적 여유와 환경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신체와 정신간의 균형있는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 및 자아정체감 확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Han et al., 2004; Song, Ahn, & Kim, 2002).

Frankl(1969)은 모든 상황은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상태에서도 삶은 무조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갖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므로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삶에 있어 근본적인 힘이 되고 이것을 상실한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절망과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 질문을 갖기 시작하는 학령기 후기의 아동에게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령기 후기 아동이 느끼는 삶의 의미 측정도구가 필요하나 현재 국내에서는 노인과 성인의 삶의 의미 측정을 위한 도구가 개발되었을 뿐(Choi, Kim, Shin, Lee, & Jung, 2003; Choi, Kim, Shin, & Lee, 2005)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적합한 삶의 의미 측정도구는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그들의 삶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는 삶의 의미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령기 후기 아동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한다.
-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다.
- 개발한 도구를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는 삶의 의미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도구개발 과정

● 개념적 기틀의 구성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구성은 Frankl(1969)의 의미요법(logotherapy) 이론과 Choi 등(2005)이 Frankl(1963) 의 이론을 토대로 개발한 삶의 의미(Meaning In Life; MIL)의 개념적 기틀을 참고로 하였는데, 문헌고찰을 통하여 10-13세 아동에서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인생의 의미 지각 수준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Frankl(1969)의 의미요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선택의 자유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방법으로서, 의미요

법 이론의 주요개념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가지며(삶의 의미, meaning of life),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의미추구의 의지, will to meaning)이다. 의미추구를 위한 인간의 욕구와 관련하여 자아초월(self-transcendence)의 개념이 있으며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자아로부터 초점을 옮겨 다른 사람 혹은 일과 관계를 맺는 것 즉,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몰두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자유(의지의 자유, freedom of will)가 있는 데 이 자유는 어떤 상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운명에 대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길을 발견하여 그 선택을 지속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며(책임, responsibility) 선택의 자유를 가지면서 책임있게 존재상황과 대결하여 그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 또한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영적인 존재(영성, spirituality)이다(Frankl, 1963, 1969).

삶의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삶이라는 특수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인간은 자신이 처한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Frankl, 1969). 첫째는 창조적 가치(creative value) 실현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는 직업, 일, 취미 등과 같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 실현으로,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얻는 가치의 체험, 중요한 타인과의 만남, 자연 그리고 예술세계에 몰입함으로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는 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로, 이는 세가지 가치실현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의미추구 방법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짐으로서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Kang & Lee,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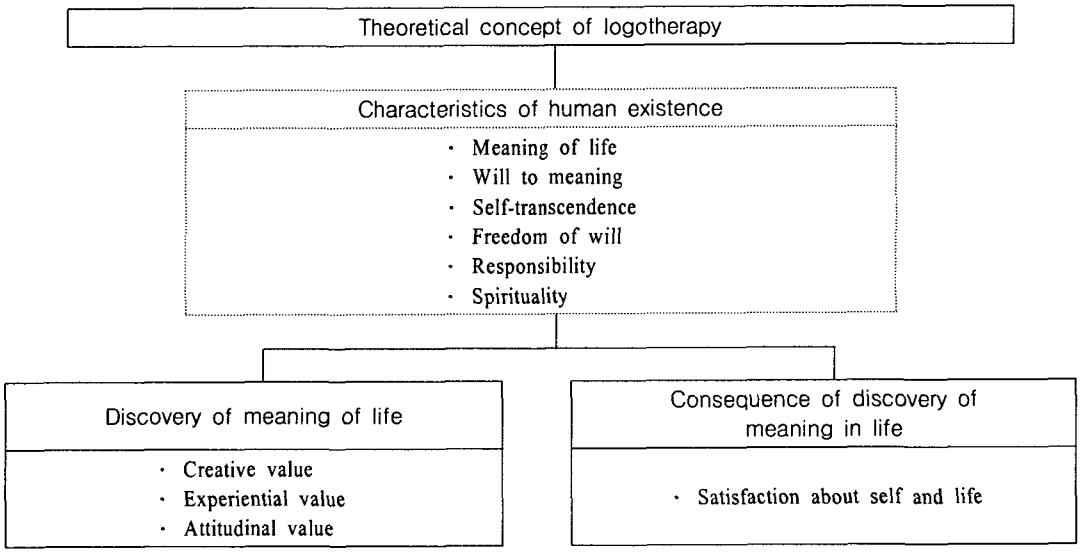
학령기 후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아정체감 형성이 시작되지만 자아정체감과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능력은 부족한 시기이다(Han et al., 2004). 따라서 아동의 발달주기에 비추어 볼 때 인간 실존의 특성(삶의 의미, 의미추구의 의지, 자아초월, 의지의 자유, 책임, 영성)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Frankl(1969)이 제시한 의미발견의 방법인 '창조적 가치실현', '경험적 가치실현', '태도적 가치실현', 의 차원과 삶과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신과 내 생활에 대한 만족'의 4개 차원을 개념적 기틀로 구성하였다.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 측정을 위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 문항개발 과정

• 1차 예비문항의 작성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전문가(교사, 간호학자) 3명과 학령기 후기인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생 5명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나요?" 등의 비구조적인 방법의 개방형 질문을



* [ ] :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 측정 도구개발을 위한 차원구성에서는 제외됨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meaning of life late school-age children

하였는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정도이었다. 그리하여 기존에 개발된 삶의 의미 측정도구와 면담에서 나타난 내용 및 관련문헌을 참고로 하여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된 문항과 관련된 문항은 용어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삶의 의미 측정도구 1차 예비문항으로 30문항이 선정되었다.

• 내용타당도 검증 및 2차 예비문항의 선정

내용타당도는 각 하위척도의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얼마나 대표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선정된 30개의 1차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심리학자와 간호사, 간호학자, 의사, 초등교사로 구성된 14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문항의 타당성은 문항의 내용과 구성을 '매우 타당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타당하지 않다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CVI(Content Validity Index)(Lynn, 1986)로 평가하였으며 이 중 80% 이상이 되는 문항을 2차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2차 예비문항으로 선정된 학령기 후기 아동을 위한 삶의 의미 측정문항은 25문항이 되었다.

• 사전조사

사전조사에서는 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측정도구의 언어 구사와 배열순서, 형식, 내용 등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문제를 발견해 낼 기회를 찾기 위해 예비도구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각 영역의 문항들을 서로 섞어서 구성하였는데 문항에 따라 각 항목당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홀수 척도(3점 혹은 5점 척도)인 경우 사람들은 극단적인 표현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절대 찬성'이나 '절대 반대'에는 별로 응답하지 않고 중립적인 범위에 머물기를 좋아하여 응답의 분산이 극소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보통이다' 의 중립적 유목을 빼고 4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사전조사의 대상자는 본 조사에서 연구할 대상자와 비슷한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고 표본의 크기는 20-50명이면 적합하므로(Nunnally, 1978) 학령기 후기 아동인 초등학교 고학년생 2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지 내용과 자료수집 시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은 조사원 2명과 연구자는 연구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Lee, Lim과 Park(1998)은 대상자에게 30분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25분 이내가 소요되었다. 그리하여 25개 문항 중 1개 문항(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다)은 대상자들이 의미를 혼동하여 제외하였다.

• 최종 문항 선정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과 24개의 예비문항을 문항분석(item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를 토대로 최종 24개의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24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하여 대상자가 삶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최종적으로 선정된 24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4점 척도의 삶의 의미 설문지를 학령기 후기 아동인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주시,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기 후기 아동 580명을 편의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최소한 100개 이상의 사례가 이상적이며 많을수록 좋다(Lee et al., 1998; Yang, 1998)는 근거 하에 수집한 것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교사에게 설문내용 및 자료수집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는 연구자가 아닌 담당교사만이 설문지 자료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교사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하기로 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자가 기입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는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 이내였다. 자료수집은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최종분석은 응답이 누락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5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반분법에 의한 Guttman의 반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 도구의 구성타당도는 문항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의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문항의 준거타당도는 Rosenberg(1973)가 개발하고 Jeon (1974)이 한국어로 번역한 4점 척도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를 준거변인으로 이용하여 상관계수로

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이 203명(35.4%)이었고 경북이 271명(47.2%), 강원도가 100명(17.4%)이었다. 성별은 남아가 288명(50.2%), 여아가 286명(49.8%)이었고 학년은 4학년이 193명(33.6%), 5학년이 189명(32.9%), 6학년이 192명(33.4%)이었다. 형제순위는 첫째가 276명(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가 235명(40.9%)이었고 셋째 이상인 경우가 63명(11.0%)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303명(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교가 125명(21.8%), 천주교가 16명(2.8%), 기타가 25명(4.4%)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105명(18.3%)으로 나타났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과 반분법에 의한 Guttman의 반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전체 24문항의 Cronbach's α는 .893이었으며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876으로 나타났다. 생의 의미의 요인별 Cronbach's α는 .699-.776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648-.776으로 나타났다.

도구의 타당도 검증

●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는 측정도구와 측정하려는 개념의 이론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측정이론의 발달로 간주되며 논리적 분석과 이론에 근거한 예측되는 관계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Lee et al., 1998). 하나의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과 관련하여 가능한지를 예측하는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문항분석

문항분석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항이 전체 척도가 판별하려는 것과 같은 것을 판별하는지의 여부와 문항이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구의 각 문항을 분리해 평가함으로써 검사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Issac & Michael, 1974).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coefficient)가 .30 이상이면서 .80 미만인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이는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30 미만인 경우 해당되는 문항은 각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80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된 문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문항 선정 시에는 동시에 특정 해당 문항을 제외하였을 때의 alpha 값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문항분석의 결과 24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Table 2>.

<Table 1> Each factor's reliability

Factor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Guttman
Relational experience	6	.740	.706
Positive attitude	6	.699	.648
Satisfaction/ Hope	6	.733	.742
Pursuit of goal	4	.739	.762
Experience of family love	2	.776	.776
Total	24	.893	.876

<Table 2>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No	Content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1	I rather have many goods than shorts	.443	.890
2	I am a kind of person who are really important by my families and others	.510	.888
3	I like my character	.413	.891
4	I think I am popular among of my age friends	.485	.889
5	I am satisfied my gender	.365	.892
6	I think difficulties are always followed by good things	.489	.889
7	I think everyday life depends on me	.536	.888
8	I love my families surrounded me	.323	.892
9	My families are loving me	.412	.891
10	I have many memories to be happy	.558	.887

<Table 2>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continued)

No	Content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11	I have truly loved somebody	.610	.886
12	I want many things to do	.414	.890
13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635	.885
14	With love, many difficulties can be overcome	.580	.886
15	I have my purpose in life	.462	.890
16	I am a kind of people who search out for work	.579	.886
17	I am doing anything to accomplish my goal	.491	.889
18	I have been faithfully devoted to my task	.564	.887
19	I am doing what I always wanted to do	.456	.890
20	I feel grateful for even very trivial matters	.382	.891
21	I feel very grateful to be live	.631	.885
22	I often smile	.542	.887
23	I can help people who are poorer than me	.425	.890
24	Even if I should die today, I am happy	.329	.895

• 요인분석

- 요인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적합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24개의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sampling adequacy)측도를 이용한 결과 .910으로 본 자료는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KMO의 값이 .5 이하이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고 .8 이상이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좋은 자료로 판단한다(Kaiser, 1974)는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Bartlett's sphericity) 검정결과, χ^2 검정통계량의 값이 4237.824(p=.000)로 나타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문항의 선정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Bartlett, 1951)로 증명되었다<Table 3>.

<Table 3> A Result of KMO &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KMO measure of sampling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910	Approx. χ^2	4237.824
	df	276
	p	.000

- 요인추출

주로 사용되는 요인추출방법에는 주성분법(principal component method)과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등이 있는데(Lee, 1995, 2000),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이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주성분법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52.311%를 설명하고 있었다.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기초로 한 검사결과(Johnson & Wichern, 2002; Mardia, Kent & Bibby, 1979)에서도 5요인 이후 그래프의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총 5개 요인을 회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요인회전 및 요인명명

본 연구에서는 요인구조를 회전하는데 있어서 직각회전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문항과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부하량은 어느 정도 커야 유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30 이상이면 유의성이 있다(Kang, Serk, & Oh, 1993)는 근거하에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요인 부하량이 .377 이상이므로 삭제하지 않았다. 모든 변수들은 각 요인에 배정시키고 요인부하값의 형태에 따라 요인을 설명하였다<Table 4>.

제 1요인에는 '나는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이 많다', '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내 성격이 마음에 든다', '나는 같은 학년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나는 즐거웠던 기억이 많다', '매일 매일 사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항상 잘 웃는 편이다'의 7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요인 2에서의 적재량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요인 2에 포함되었던 11번 문항인 '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문헌과 공통성(communality) 값(.497) 및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요인 1(.395)에 포함하였다. 반면 21번 문항인 '매일 매일 사는 것이 감사하다'와 22번 문항인 '나는 항상 잘 웃는다'는 요인 2에 포함시켰는데, 이들 문항은 요인 2에서의 적재량이 각각 .377, .426으로 요인 1의 적재량(.435, .478)바로 다음 순위이며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인해 문항의 공통성(communality)값이 각각 .533, .459로 낮았고 문헌고찰과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요인 1과 더 밀접한 문항으로 판단되어 요인 2에 포함시켰다. 또한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요인 1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계적 경험」으

<Table 4> A result of factor analysis

Factor	No	Content	Factor loading
Relational experience	1	I rather have many goods than shorts	.698
	2	I am a kind of person who are really important by my families and others	.511
	3	I like my character	.550
	4	I think I am popular among of my age friends	.701
	10	I have many memories to be happy	.394
	11	I have truly loved somebody(factor 2-.494)	.395
Positive attitude	14	With love, many difficulties can be overcome	.509
	20	I feel grateful for even very trivial matters	.546
	21	I feel very grateful to be live(factor 1-.435)	.377
	22	I often smile (factor 1-.478)	.426
	23	I can help people who are poorer than me	.700
	24	Even if I should die today, I am happy	.566
Satisfaction/Hope	5	I am satisfied my gender	.472
	6	I think difficulties are always followed by good things	.527
	7	I think everyday life depends on me	.538
	12	I want many things to do	.649
	13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518
	15	I have my purpose in life	.644
Pursuit of goal	16	I am a kind of people who search out for work	.548
	17	I am doing anything to accomplish my goal	.796
	18	I have been faithfully devoted to my task	.636
	19	I am doing what I always wanted to do	.546
Experience of family love	8	I love my families surrounded me	.877
	9	My families are loving me	.835

Factor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Relational experience	7.244	30.183	30.183
Positive attitude	1.724	7.183	37.366
Satisfaction/ Hope	1.327	5.530	42.896
Pursuit of goal	1.160	4.833	47.730
Experience of family love	1.100	4.581	52.311

로 명명하였고 이 요인의 고유값은 7.244로서 전체 변량에 대해 30.183%로 5개 요인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제 2요인에는 '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나는 사랑에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고맙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보다 가난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행복하다'의 5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나 전술한 바대로 요인 1로 나타난 2개의 문항(21, 22번)을 포함시키고 요인 2로 나타난 1개의 문항(11번)을 제외하여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은 「긍정적 태도」로 명명하였는데, 이 요인의 고유값은 1.724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7.183%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 3요인에는 '내가 여자(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마음에 든다',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생각한다', '하루하루는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 '내 주변에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많다', '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장래 희망)이 있다'의 6개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만족/ 희망」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1.327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5.530%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 4요인에는 '나는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는다', '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의 4개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목표 추구」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1.160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4.8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 5요인에는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내 가족들은 나를 사랑한다'의 2개 요인이 포함되었는데 이 요인은 「가족 사랑의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값은 1.100이며 전체 변량에 대해 4.581%의 설명력을 보였다.

● 준거타당도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삶의 의미인 '삶과 존재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인 자아존중감 척도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도

와 타당도가 검증된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한 준거타당도 r=.558(p=.000)이었다.

또한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있어서 전체 삶의 의미(MOL, Meaning of Life)는 요인 1과 .844(p=.000), 요인 2와 .847(p=.000), 요인 3과 .821(p=.000), 요인 4와 .769(p=.000), 요인 5와 .457(p=.000)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삶의 의미 도구는 준거타당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 MOL with SE

		SE		MOL	
		r	p	r	p
MOL		.558	.000		
Factor 1:	Relational experience			.844	.000
Factor 2:	Positive attitude			.847	.000
Factor 3:	Satisfaction/Hope			.821	.000
Factor 4:	Pursuit of goal			.769	.000
Factor 5:	Experience of family love			.457	.000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념적 기틀로 Frankle(1963, 1969)이 제시한 의미발견 방법인 '창조적 가치실현', '경험적 가치실현', '태도적 가치실현', 의 차원과 '자신과 내 생활에 대한 만족'의 4개 차원을 구성하였다. 성인의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Choi 등(2005)의 연구에서는 Frankl(1963)의 이론을 토대로 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전제국면으로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의미발견 과정으로서 '창조적 가치실현', '경험적 가치실현', 의미발견의 결과국면인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의 4개 국면으로 구성된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비록 측정대상은 다르더라도 삶의 의미라는 특성으로 인해 1개 차원을 제외한 3개의 차원에서 개념적 기틀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도구개발과정에 따라 문항 개발과정에서는 예비문항을 작성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일반화가 가능한 도구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심리학자와 간호사, 간호학자, 의사, 초등교사로 구성된 14명을 대상으로 CVI(Content Validity Index)계수로 문항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80% 이상이 되는 문항을 2차 예비문항으로 선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언어구사와 배열순서, 형식, 내용 등이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를 고려하였으며 동시에 특정 해당 문항을 제외하였을 때의 alpha 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분별력이 높은 문항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개발된 삶의 의미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최종 24개의 문항이 확정되었는데, 고유값 1.0 이상으로 나타난 5개의 요인은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해 작성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4개의 차원에 일치되어 이론적 구성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문항의 내용에 따라 요인 적재값이 요인 간에 뚜렷한 구별을 보이지 않고 인자 복합성을 나타내는 문항은 무조건 삭제하지 않고 개념적 기틀에 부합되는 영역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5개의 요인 중 요인 1과 요인 5는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의 경험적 가치 차원에 해당되어 요인 1은 「관계적 경험」으로, 요인 5는 「가족사랑의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의 「관계적 경험」에 포함한 11번 '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문항은 요인 2에서의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았으나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 준해 볼 때 요인 1에 더 적합한 문항으로 판단되어 요인 1에 포함하였다. 요인 1과 요인 5에 포함된 문항은 Frankl(1969)이 의미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발견 방법 중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얻는 것으로 가치의 체험, 중요한 타인과의 만남, 자연 그리고 예술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적 가치 차원에 해당되는(Kang & Lee, 2004; Frankl, 1963, 1969) 문항으로 학령기 후기 아동에서는 「관계적 경험」, 「가족사랑의 경험」 요인이 확인되었다. 또한 「관계적 경험」은 30.1%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준 요인으로 노인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Choi et al., 2003)에서의 관계적 양상의 설명력 3.1% 와 성인의 생의 의미 측정도구에서의 2.6% 설명력(Choi et al., 2005)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후기 아동에서 삶의 의미발견에 관계적 경험이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나타내므로 학령기 후기 아동을 위한 의미증진 프로그램 개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구성내용으로 생각한다.

요인 2는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의 태도적 가치 차원에 해당되어 「긍정적 태도」로 명명하였는데, 7.1%의 설명력으로 5개 요인 중 두 번째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21번 '매일 매일 사는 것이 감사하다' 문항과 22번 '나는 항상 잘 웃는다' 문항은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및 개념적 기틀에 준해 요인 1에서의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았으나 요인 2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요인 2에 포함하였다.

요인 3은 「만족/희망」으로 명명하였는데, 이 요인의 문항

은 개념적 기틀의 의미발견의 결과 차원에 해당되었다. 태도적 가치는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Choi et al., 2005; Kang & Lee, 2004; Frankl, 1969)는 의미요법의 이론과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 부합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제 4요인인 「목표 추구」는 Frankl(1969)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의 노동이나 취미, 임무에의 열중 같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삶에서 의미를 찾는 '창조적 가치실현'에 해당된다. Choi 등(2005)이 MIL 도구에서 제시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목표추구' 영역에서는 인생의 목표설정 및 이를 위한 노력을 확인하는 문항이 제시되었으나 학령기 후기 아동의 경우, 자아정체성과 직업의식이 형성되는 시작단계에 있으므로(Kim et al., 2002) 본 연구의 도구에서는 삭제하고 대신 학령기 아동의 특성에 맞게 현재중심적인 '내가 해야 할일'을 묻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대상자 수는 574명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 문항수인 24문항의 24배에 해당되는 수치로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일반화가 가능한 도구가 개발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삶의 의미 측정도구는 정보화 사회의 빠른 변화 및 경쟁적인 교육여건 속에서 신체와 정신의 발달 및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령기 후기 아동을 위한 의미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측정에 적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없어 그들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는 삶의 의미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학령기 후기 아동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도시, 중소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주시,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의 학령기 후기 아동 580명을 편의 표집하여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이 중 내용이 불충분한 6개의 자료는 제외한 총 574개의 자료(99%)를 SPSS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생의 의미 측정도구와 의미요법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기초로 작성된 30개의 예비문항을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과 문항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정·축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적합한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의미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9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관계적 경험」, 「긍정적 태도」, 「만족/ 희망」, 「목표 추구」, 「가족사랑의 경험」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삶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관계 r=.558(p=.000)로 나타나 준거타당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도구의 준거타당도의 재검증을 위해 삶의 의미와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상관연구가 필요하다.
- 본 도구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특성 집단의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본 도구의 일반화를 위해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에서 표본을 추출한 연구가 필요하다.
- 발달특성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청소년, 청년기의 삶의 의미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Alsop, P., & McCaffrey, T. (1998). *How to cope with childhood stress: A practical guide for teachers. Harlow.* Longman Publishing Co.

Bartlett, M. S. (1951). The effect of standardization in x^2 distribution in factor analysis. *Biometrika, 38,* 337.

Choi, S. O., Kim, S. N., Shin, K. I., Lee, J. J., & Jung, Y. J. (2003). Development of elderly meaning in life scale. *J Korean Acad Nurs, 33*(3), 414-424.

Choi, S. O., Kim, S. N., Shin, K. I., & Lee, J. J. (2005).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Scale II. *J Korean Acad Nurs, 35*(5), 931-942.

Frankl, V.(1963).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Frankl, V. (1969).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 and application of logotherapy.* New American Library: New York.

Han, S. C., Choi, A. M., & Park, S. H. (2004). *Adolescent pshchology.* Seoul: YangSueWon Publishing Co.

Issac, S., & Michael, W. G. (1974). *Handbook in research and evaluation.* CA: Knapp.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11,* 107-129.

Johnson, R. A., & Wichern, D. W. (200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NJ: Prentice Hall.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Kan, K. A., & Kim, Y. H. (2000). A research on an actual state of drinking and smokin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6*(1), 51-59.

Kang, B. S., Serk, K. S., & Oh, Y. J. (1993). *SPSS/PC+ for*

statistical analysis. Seoul: Trade Management Press.

Kang, K. A., & Lee, W. H. (2004). Hospice and logo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7*(2), 143-152.

Kim, H. S., Kang, K. A., Kim, S. A., Kim, S. J., Kim, H. S., Kim, H. O., Moon, Y. Y., Yang, E. Y., Lee, M. S., & Jeong, H. K. (2002). *Child health nursing*. Seoul: KoonJa Publishing Co.

Lee, E. O., Lim, N. Y., & Park, H. Y. (1998). *Nursing medical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Seoul: SooMoon Publishing Co.

Lee, S. M. (1995). *Factor analysis*. Seoul: HakJi Publishing Co.

Lee, S. M. (2000). *The fundamentals of factor analysis*. Seoul: KyoYukKwaHakSa.

Lynn, M. R. (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5.

Mardia, K. V., Kent, J .T., & Bibby, J. M. (1979) *Multivariate analysis*. London: Academic Press.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Oh, W. O. (2004). Computer game addiction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3), 291-299.

Park, A. C. (2001). *Understanding of personality psychology*. Seoul: KyoYookKwaHakSa Publshing Co.

Rosenberg, M. (1973).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16*, 829-860.

Song, M. R., Ahn, H. Y., & Kim, E. K. (2002).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adolesc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8*(2), 141-151.

Yang, B. H.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and its applications*. Seoul: HakJi Publishing Co.